

서초구 재산세 놓고 與·野 ‘대립’

행안위 서울시 국감

與 “재산세 올리는 규정 만들라”
野 “재산세 감면, 타 구에 지도”
서정협 권한대행 “고민해보겠다”



서정협 서울시시장 권한대행이 15일 오전 서울 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라는 미증유 사태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재산세 등 세금감면 문제를 놓고 여야가 정반대의 입장을 드러내며 신경전을 벌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감에서 “정부가 전진시상황이라고 표현할 만큼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서초구와 같이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재산세를 50% 감면해준다면 다른 자치구에 지도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서초구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50% 낮춰주는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25일 재산세 감면 조례안이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서울시가 제동을 걸었다. 시는 해당 조례안이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없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라는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한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며 재의

를 요구했다. 서초구는 조례 공포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권 의원은 “중소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경제가 정말로 어렵다”면서 “이런 때 무리해서 (세금을) 많이 거둬서 많이 나눠주고 하는 것보다 애초에 적게 거두는 게 상책이 아니냐”고 말했다.

야당인 김용관 국민의힘 의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세금 감면 대책에 대해 적극 검토한다고 하지 않았나. 세금 폭탄을 맞은 국민들을 위해서 서초구청이 참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불쌍사나운 법정 분쟁하지 말고 서초구청과 머리 맞대 문제를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김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재산세 비교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강남 3구 재산세는 6753억320만원에서 2019년 1조1442억57만원으로 약 70% 늘었다. 같은 기간 강북 3구 재산세는 772억5479만원에서 1057억1199만원으로 36.8% 증가했다. 강남 3구와 강북 3구의 재산세 차이는 2010년 8.7배에서 2019년 10.8배로 폭증했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산세 이런 거를 보면 서울시 참 부럽기만 하다”면서 “그런데 우리나라에 집값이 이렇게 오르면 사업할 사람이 있겠냐”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집값, 땅값, 건물값이 오르면 중소기업을 뭐하러 운영하냐. 땅 사고 집 사놓으면 계속 오르는데”라면서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큰 피해를 가져온다. 모럴 해저드 정도가 아니라 젊은 친구들한테 일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든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런 불평등을 막아내는 방법은 세금 말고는 없다”면서 “가장 문제가 많은 서울시가 모범이 돼 재산세를 올리는 규정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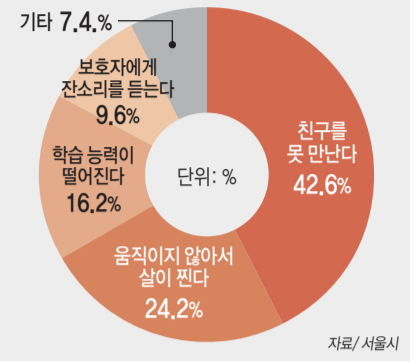
서정협 서울시시장 권한대행은 “수요와 공급이 잘 이뤄져 집값이 안정화돼야 하는데 지금은 초저금리 등 여러 요인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라며 “저희도 고민해보겠다”고 답변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코로나로 달라진 어린이 집콕 생활

‘친구 못 만나 안 좋아’ 42.6%

집콕 생활의 단점 설문 조사 결과



“늦잠을 자면 얼굴이 퉁퉁 부어서 두꺼비가 되어 일어난다”, “마스크에 익숙해졌다. 처음에는 KF80만 써도 답답했는데 지금은 KF94를 쓰고도 뛰어다닐 수 있다”, “스트레칭 달인이 돼 앞돌기, 옆돌기를 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매일 등교하던 교실 풍경이 사라지고 집콕 생활이 이어지면서 어린이들의 일상이 바뀌고 있다.

서울시는 어린이 기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달라진 일상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15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42.6%는 집콕 생활을 하며 가장 안 좋은 점으로 ‘친구

를 못 만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움직이지 않아서 살이 찐다’ (24.2%), ‘온라인 수업이 싫고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 (16.2%), ‘보호자에게 잔소리를 많이 듣는다’ (9.6%) 순이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30일까지 무료 광견병 예방접종

서울시는 오는 30일까지 광견병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반려인은 자치구 홈페이지나 다산콜센터를 통해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정 동물병원을 확인한 후 방문해 시술료 5000원만 지불하면 무료로 제공되는 백신을 반려견에 맞출 수 있다.

다만 동물등록이 된 반려견 지원이 우선이므로,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예방접종에 앞서 해 두는 것이

좋다. 서울시와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 사단법인 서울시수의사회는 연말까지 반려견 4만 마리에 대해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한다.

비용은 반려견당 1만원이며, 반려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려견과 함께 사업 참여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수의사회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수소 생산·공급 원스톱 ‘상암수소스테이션’

서울시, 올해까지 무료 운영
하루 수소생산량 160kg 늘어



상암수소스테이션. /서울시

서울시는 원활한 수소 생산과 공급이 가능하게끔 수소차 충전소 ‘상암수소스테이션’의 성능을 개선해 오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상암수소스테이션은 2011년 연구 목적으로 처음 설치됐다. 2018년 수소차 상용화에 따라 일반인에게도 무료로 개방했지만, 수소 생산량 한계와 충전 압력 부족 등으로 불편이 있었다.

이번 개선으로 스테이션의 하루 수소 생산량은 기존 75kg에서 160kg으로 늘어났다. 하루 충전 가능 대수도 기존 10여대에서 30여대로 많아졌다.

충전 압력은 기존 350bar에서 700bar로 두 배가 됐다. 이는 한 번에 충전할 수 있는 양이 두 배로 늘었다는 의미다.

수소 생산은 매립지 메탄가스에서 수소를 분리하던 기존 방식에 도시가스에서 수소를 분리하는 방식을 더해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한다.

스테이션은 올해 말까지 무료로 운

영하고 내년부터는 유료로 전환한다. 1회 충전 용량은 4kg이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SangAm H2)이나 ‘상암수소충전소’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문화예술인 12명에 ‘서울특별시 문화상’

공적 심사위 심사 거쳐 수상자 선정

서울시는 오는 17일 ‘문화의 날’을 맞아 ‘제69회 서울특별시 문화상’을 수여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한 달간 14개 분야에서 총 64건의 후보 추천을 받은 뒤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다.

KBS 성우 공채 1기로 입문해 ‘한국 1세대 성우’로 꼽히는 고은정 씨를 비롯해 박영순 고려대 명예교수, 이영준 한국시조명인협회 이사장, 최우정 서울대 작곡과 교수, 경임순 서울시 무형문화재 위원, 박명성 신시컴퍼니 대표 프로듀서 등이 상을 받는다.

또 KBS 프로그램 ‘김영철의 동네한



성우 고은정 씨. /서울시

바퀴’, 유창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41호 예능보유자, 김응수 프리미어팩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오성식 영등포구 체육회장, 강희일 다산출판사 대표, 김희근 벽산엔지니어링 회장도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현정 기자

위기가구 생계지원, 현장접수 19일 시작

서울시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현장접수를 19일부터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으로 소득이 25% 이상 급감해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다.

사업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이 25% 이상 줄

어든 경우 지난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수급이 종료된 가구 등이다.

소득 감소는 올해 7~9월 소득(월 또는 평균소득)이 과거 비교 대상 기간 동안 신고한 근로·사업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했는지 여부로 판단된다.

지급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 재

산 6억원 이하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지원을 받았을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는 올해 9월 9일 주민등록 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신청·지급된다. 신청 마감일은 30일이다. 접수 가구에 대한 소득·재산 조회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현금 지급된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41 | 해질 17:54

10월 16일 (금)
음력 : 8월 30일

수도권 날씨
10 ~ 18°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 연천 5/16
- 동두천 6/17
- 가평 5/16
- 양평 6/18
- 용인 10/17
- 평택 7/19
- 수원 11/17
- 인천 11/16
- 파주 6/17
- 백령도 13/16
- 서울 10/18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